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Nonverbal Communication Ability in One-year-olds'
and Teachers' Sensitivity on the Adjustment of Infants to Child Care Centers

김신혜¹ 성미영²

Shin Hye Kim¹ Mi Young Sung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controlled the SES(Socio Economic Status) in order to compare the influence of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ability and teachers' sensitivity on the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s.

Methods: For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115 mothers with one-year-olds'(58 boys, 57 girls) and from 115 teachers from forty-eight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t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Results: First,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ability and teachers' sensitivity. Second, among the variables explaining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s, the effect of teachers' sensitivity was higher than the effect of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abilit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teachers' sensitivity is a strong factor explaining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s. W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eachers, providing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for child care teachers and education for improving sensitivity.

key words infants' nonverbal communication ability, teachers' sensitivity,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
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
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제1저자의 동덕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제1저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과 아동학전공 석사

2 교신저자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 minie72@dongduk.ac.kr)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핵가족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과거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감소와 출산율 상상을 위해 시행된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

부의 2018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08년 501,889명이었던 어린이집 재원 영아의 수는 2018년에 843,764명으로 증가하여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도 약 3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어린이집은 영아가 가정을 떠나 처음 접하게 되는 낯선 환경으로, 영아는 어린이집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기관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적응 과정을 겪게 된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영아의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등이 있으며(강선영, 정지나, 2019; 이상순, 이완정, 2019; 임영심, 박은주, 문수백, 2012; Peleg, Halaby, & Whaby, 2006), 개인 외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의 민감성, 어린이집의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윤정민, 이주연, 2018; Buyse, Verschueren, & Doumen, 2011).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아도 태어날 때부터 의사소통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울음, 미소, 웅얼이, 몸짓 등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공동주의(joint attention)의 출현으로부터 나타나는데, 공동주의란 영아가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 주 양육자와 함께 시각적 주의를 기울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Elian, Hoerl, McCormack, & Roessler, 2005). 공동주의를 통해 발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어린이집 적응의 정적 상관을 밝힌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김순환, 조혜연, 김민정, 2013; Pons, Lawson, Harris, & de Rosnay, 2003).

그러나 어린이집 적응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김순환 등, 2013), 영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임영심 등, 2012; Claussen, Mundy, Willoughby, & Scott, 2002).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언어적 표현보다 비언어적인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변인 중 교사 변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교사 역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교사 대상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교사효능감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윤정민, 이주연, 2018), 교사의 민감성과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강선영, 정지나, 2019; Gerber, Whitebook, & Weinstein, 2007)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교사변인 중 민감성은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적응하였다(김민정, 2017).

교사의 민감성이란 교사가 영아의 다양한 신체적·정서적 표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민감성을 민감한 상호작용과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였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영아와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는데, 이때 영아는 자신의 물리적·정신적 욕구를 완벽한 언어적 형태로 표현할 수 없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거나 간단한 언어 표현에 비언어적 수단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교사와 상호작용을 시도한다. 영아와 교사의 적절한 상호작용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토대로 또래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이후 대인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Gerber et al., 2007). 또한, 영아 스스로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며(박희숙, 김현경, 2016),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고(길현주, 김수영, 2014; 엄미리, 조윤경, 2013; Peisner-Feinberg, & Burchinal, 1997), 낯선 환경이라는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영아의 공격성을 낮추며(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처음 겪는 부모와의 분리불안에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영아는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을 점차 안정된 환경으로 인식하게 되어(김미영, 2011; Dix, 2000; Howes & Smith, 1995), 어린이집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영아의 월령, 성별, 순위 형제의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영아의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대체로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한 이후에도 완벽한 언어적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기까지 더욱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보고하였으며(배유림, 2016), 월령이 높은 영아가 월령이 낮은 영아에 비해 친사회성이 높고 일과 및 규칙 등에 더 원활한 적응을 보였음이 나타났다(임민영, 2016). 또한 영아의 성별과 관련하여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며, 보다 빠르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김민정, 2017; 송애란 등, 2015). 한편, 순위 형제의 유무의 경우 영아가 가정에서 순위 형제와의 사회관계를 먼저 경험하면서 배운 다양한 사회기술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박정화, 2014; 송애란 등, 2015; 양숙경, 2010).

이처럼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어린이집 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각 변인들의 긍정적 영향력과 함께 월령, 성별, 형제유무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의해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아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하는지, 특히 개인 내적 요인으로써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나 개인 외적 요인으로써 교사의 민감성의 어떤 하위요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영아가 욕구의 표현을 도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 교사의 민감성은 영아의 다양한 신호와 표현에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통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된 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개인 내적 변인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개인 외적 변인인 교사 민감성의 어떤 하위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봄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민감성,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은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의 민감성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의 민감성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4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1세(12~23개월) 영아 150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 15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배부된 각 150부의 질문지 중 12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각 1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영아의 월령은 115명 중 12~17개월의 영아가 45명(39.1%), 18~23개월의 영아가 70명(60.9%)이었고, 성별은 남아가 57명(49.6%), 여아가 58명(50.4%)이었으며, 그 중 형제가 있는 영아가 49명(42.6%), 형제가 없는 영아는 66명(57.4%)이었다. 이때 영아의 형제는 손위형제를 의미한다.

2. 연구도구

1)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Delgado, Mundy, Venezia 그리고 Block(2003)의 Pictorial Infant Communication Scale(PICS)을 김연수와 박금주(2010)가 번안한 것에 본 연구자가 문항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를 첨부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공동주의 시도(6문항)’, ‘공동주의의 반응(4문항)’, ‘행동조절(6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3점 Likert 척도로 ‘없다(1점)’, ‘가끔 있다(2점)’, ‘빈번하다(3점)’의 범위 내에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89이며, 공동주의 시도 신뢰도는 .75, 공동주의 반응 신뢰도는 .85, 행동조절 시도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2) 교사의 민감성

교사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erber(2003)가 개발한 교사의 민감성(teachers' sensitivity) 척도를 영아교사를 대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김민정(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민감성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비민감한 상호작용’을 제외한 ‘민감한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3)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측정을 위해 Jewsuwan, Luster 그리고 Kostelnik(1993)의 어린이집 적응 척도(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친사회적 행동(5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또래관계(6문항)’, ‘자아강도(6문항)’, ‘일과에 대한 적응(7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5점 Likert 척도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hronbach's α)는 .97이며, 친사회적 행동 신뢰도는 .93, 긍정적 감정 신뢰도는 .75, 또래관계 신뢰도는 .93, 자아강도 신뢰도는 .85, 일과적응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DDWU1911-08)을 받은 후, 서울 및 경기 소재 48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12~23개월 영아 150명의 어머니와 교사 15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어린이집의 각 학급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부된 질문지 150부 중 120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5부를 제외하고 총 11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민감성,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 민감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민감성, 만 1세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민감성,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다른 주요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동주의 시도’는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r = .25, p < .01$)’, ‘자아강도($r = .21, p < .05$)’, ‘일과적응($r = .28, p < .01$)’에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공동주의 반응’은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행동($r = .24, p < .01$)’, ‘또래관계($r = .28, p < .01$)’, ‘자아강도($r = .24, p < .01$)’, ‘일과적응($r = .29, p < .01$)’에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행동조절 시도’는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r = .18, p < .05$)’, ‘일과적응($r = .20, p < .05$)’에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민감성과 다른 주요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민감한 상호작용’은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행동($r = .28, p < .01$)’, ‘긍정적 감정($r = .39, p < .01$)’, ‘또래관계($r = .28, p < .01$)’, ‘일과적응($r = .31, p < .01$)’에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N = 115)

변인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민감성
	공동주의 시도	공동주의 반응	행동조절 시도	민감한 상호작용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친사회적 행동	.16	.24**	.14	.28**
긍정적 감정	.17	.11	.08	.39**
또래관계	.25**	.28**	.18*	.28**
자아강도	.21*	.24**	.10	.15
일과적응	.28**	.29**	.20*	.31**

* $p < .05$, ** $p < .01$.

2.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의 민감성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의 민감성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아의 월령, 성별, 형제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해당 변인을 통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단계별로 독립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회귀 모형의 설명력(R^2)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는지와 함께 최종 회귀분석 모형에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1.00에서 2.20 사이에 분포해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에 대한 염려는 적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회귀식의 Durbin-Watson 통계치는 1.20에서 1.80 사이로 나타나 변인들의 오차 간 자기 상관성이 양호하였다.

첫째,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표 1과 같이, 단계별로 변인들을 추가하였을 때 독립변인들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설명하는 정도(R^2)는 9%($F = 3.99, p < .05$), 15%($F = 3.30, p < .01$), 25%

($F = 5.33, p < .001$)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설명력의 증가가 나타난 단계는 모형 2에서 모형 3으로, 교사의 민감성을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이 15%에서 2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모형 3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영아의 형제유무($B = .17, p < .05$),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인인 ‘공동주의 반응’($B = .22, p < .05$)과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민감한 상호작용’($B = .34, p < .001$)’으로,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상대적 영향력 ($N = 115$)

구분	모형1 (사회인구학적변인)		모형2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형3 (교사의 민감성)	
	$B(SE B)$	B	$B(SE B)$	B	$B(SE B)$	B
독립변인						
월령	8.05	.18*	4.23	.09	2.35	.05
성별	5.94	.14	5.29	.12	3.10	.07
형제유무	9.31	.21*	8.93	.21*	7.39	.17*
공동주의시도			.57	.06	.26	.03
공동주의 반응			2.23	.18	2.68	.22*
행동조절 시도			.34	.03	1.22	.13
민감한 상호작용					1.50	.34***
상수	91.56		56.93		-37.61	
R^2	.09		.15		.25	
ΔR^2	.09		.05		.10	
F	3.99*		3.30**		5.33***	

* $p < .05$, ** $p < .01$, *** $p < .001$.

둘째,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인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정도(R^2)는 9%($F = 3.92, p < .05$), 13%($F = 2.84, p < .05$), 21%($F = 4.24, p < .001$)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 별 영향력은 모형 3에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공동주의 반응’($B = .23, p < .05$)과 ‘민감한 상호작용’($B = .30, p < .01$)으로 모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공동주의 반응 능력이 좋을수록, 교사의 민감성의 수준이 좋을수록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인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인들이 ‘긍정적 감정’을 설명하는 정도(R^2)는 모형 3(23%, $F = 4.70, p < .001$)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감정’과 유의하게 상관이 나타난 변인은 ‘민감한 상호작용’($B = .44, p < .001$)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이 좋을수록 영아의 ‘긍정적 감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상대적 영향력 (N = 115)

구분	모형1 (사회인구학적변인)		모형2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형3 (교사의 민감성)	
	B(SE B)	B	B(SE B)	B	B(SE B)	B
독립변인						
월령	1.68	.16	1.06	.10	.67	.06
성별	2.04	.20*	1.94	.19*	1.48	.14
형제유무	1.76	.17	1.75	.17	1.42	.14
공동주의 시도			-.10	-.05	-.16	-.08
공동주의 반응			.57	.20	.66	.23*
행동조절 시도			.15	.07	.34	.16
민감한 상호작용					.31	.30**
상수	14.184		7.59		-12.30	
R ²	.09		.13		.21	
ΔR ²	.09		.04		.08	
F	3.92*		2.84*		4.24***	

*p < .05, **p < .01, ***p < .001.

표 4. '긍정적 감정'에 대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상대적 영향 (N = 115)

구분	모형1 (사회인구학적변인)		모형2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형3 (교사의 민감성)	
	B(SE B)	B	B(SE B)	B	B(SE B)	B
독립변인						
월령	.48	.09	.17	.03	-.13	-.02
성별	-.16	-.03	-.22	-.04	-.58	-.11
형제유무	.93	.17	.87	.16	.62	.11
공동주의 시도			.17	.16	.12	.11
공동주의 반응			.03	.02	.11	.07
행동조절 시도			-.03	-.02	.11	.10
민감한 상호작용					.24	.44***
상수	16.05		13.89		-1.46	
R ²	.03		.05		.23	
ΔR ²	.03		.02		.17	
F	1.40		1.13		4.70***	

***p < .001.

넷째,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이 만 1세 영아 어린 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인들이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정도(R²)는 9%(F = 3.74, p < .05), 15%(F = 3.38, p <

.01), 24% ($F=4.94, p<.001$) 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별 영향력은 모형 3에서 확인되었다. 모형 3에서 ‘또래관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공동주의 반응’($B=.21, p<.05$)과 ‘민감한 상호작용’($B=.31, p<.01$)으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영아에게 민감하게 상호작용할수록 영아의 ‘또래관계’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또래관계’에 대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상대적 영향력 ($N = 115$)

구분	모형1 (사회인구학적변인)		모형2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형3 (교사의 민감성)	
	$B(SE\ B)$	B	$B(SE\ B)$	B	$B(SE\ B)$	B
독립변인						
월령	1.66	.14	.50	.04	.03	.00
성별	2.30	.20*	2.14	.18*	1.60	.14
형제유무	2.06	.18	1.96	.17	1.58	.13
공동주의 시도			.17	.07	.09	.04
공동주의 반응			.58	.18	.69	.21*
행동조절 시도			.16	.06	.38	.15
민감한 상호작용					.37	.31**
상수	17.36		6.83		-16.47	
R^2	.09		.15		.24	
ΔR^2	.09		.06		.08	
F	3.74*		3.38**		4.94***	

* $p<.05$, ** $p<.01$, *** $p<.001$.

다섯째,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이 만 1세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자아강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6에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인들이 ‘자아강도’를 설명하는 정도(R^2)는 8%($F=3.33, p<.05$), 12%($F=2.60, p<.05$), 14% ($F=2.62, p<.05$)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 ‘자아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영아의 형제유무($B=.20, p<.05$)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제가 있는 영아의 ‘자아강도’ 수준이 높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이 만 1세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일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7에 제시한 것과 같이 독립변인들이 ‘일과적응’을 설명하는 정도(R^2)는 10%($F=4.09, p<.01$), 16%($F=3.48, p<.01$), 27%($F=5.87, p<.001$)로 나타났다. ‘일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별 영향력은 모형 3에서 확인되었다. 모형 3에서 ‘일과적응’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공동주의 반응’($B=.22, p<.05$)과 ‘민감한 상호작용’($B=.35, p<.001$)으로 모두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공동주의 반응 능력이 좋을수록, 교사 민감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일과

적응'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아강도'에 대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상대적 영향력 (N = 115)

구분	모형1 (사회인구학적변인)		모형2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형3 (교사의 민감성)	
	B(SE B)	B	B(SE B)	B	B(SE B)	B
독립변인						
월령	1.39	.15	.80	.09	.63	.07
성별	.73	.08	.58	.06	.38	.04
형제유무	2.04	.23*	1.94	.22*	1.80	.20*
공동주의시도			.13	.07	.11	.06
공동주의 반응			.43	.18	.47	.19
행동조절 시도			-.06	-.03	.01	.00
민감한 상호작용					.13	.15
상수	20.94		15.80		7.25	
R ²	.08		.12		.14	
ΔR ²	.08		.04		.02	
F	3.33*		2.60*		2.62*	

* $p < .05$, *** $p < .001$.

표 7. '일과적응'에 대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상대적 영향력 (N = 115)

구분	모형1 (사회인구학적변인)		모형2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모형3 (교사의 민감성)	
	B(SE B)	B	B(SE B)	B	B(SE B)	B
독립변인						
월령	2.82	.23*	1.68	.14	1.13	.09
성별	1.03	.08	.85	.07	.22	.01
형제유무	2.50	.21*	2.39	.20*	1.94	.16
공동주의시도			.18	.07	.09	.04
공동주의 반응			.60	.18	.73	.22*
행동조절 시도			.11	.04	.37	.15
민감한 상호작용					.43	.35***
상수	23.02		12.80		-14.63	
R ²	.10		.16		.27	
ΔR ²	.10		.06		.11	
F	4.09**		3.48**		5.80***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1)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민감성, 만 1세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상관관계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교사의 민감성,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어린이집 적응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민감성 역시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어린이집 적응 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의 공동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 중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공동주의 반응 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 또래관계, 자아강도, 일과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의 행동조절 시도 수준이 높을수록 어린이집 적응 중 또래관계와 일과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1~2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영아발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임영심 외, 2012)에서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 연구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이 각각 어린이집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으며, 사회·정서발달과 인지발달이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을 통해 어린이집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의 언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을 잘한다고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김순환 외, 2013; 신수진, 김현명, 2018; Cutting & Dunn, 1999; Black & Hazen, 1990; Pons et al., 2003)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아에 대한 교사 민감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가 민감하게 상호작용할수록 영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더 다양하게 보이고, 긍정적 감정을 가졌으며, 또래관계에서도 활발했고, 어린이집의 일과에도 더욱 잘 적응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의 민감성이 떨어날수록 영아에게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며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함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 민감성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민정, 2017)와 일치하며, 교사민감성이 높을수록 교사와 영아 간에 긍정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이민영, 2014)와 일맥상통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높은 민감성 수준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으며(김민정, 2017; Gerber et al., 2007; Rimm-Kaufman et al., 2002), 본 결과를 통해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2)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의 민감성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의 민감성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주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주요 변인별 차이를 살펴본 독립표본 t -검증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영아의 월령, 성별, 형제유무를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 민감성의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영아의 전체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인인 ‘공동주의 반응’,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민감한 상호작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동주의 반응’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주의집중력과 언어능력의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한다(신수진, 김현명, 2018). 이는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지시나 안내 및 집단생활 규칙에 따르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응적 행동을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지속하는 능력, 교사나 또래의 언어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민감한 상호작용’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김민정, 2017), 영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적응을 위해 교사와의 안정 애착형성을 위한 민감하고 반응적인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Nievar & Becker, 2008; Shiyi & Phillips, 2018). 교사가 어린이집의 영아를 돌보는 일상에서 영아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영아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며,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행동’, ‘또래관계’, ‘일과적응’에는 영아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인인 ‘공동주의 반응’과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민감한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있어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김순환 외, 2013; 신수진, 김현명, 2018; 임영심 외, 2012), 언어능력의 수준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의 수준이 달라지며, 적응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 ‘또래간의 적응’, ‘자아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병욱, 2009).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태도와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며, 또래 관계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기에(길현주, 김수영, 2014; 이경진, 이유진, 2017; Hamre, Hatfield, Pianta, & Jamil, 2014; Mahoney & Macdonald, 2007) 교사의 민감성이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감정’에는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민감한 상호작용’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정서적·행동적 반응을 조절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자이며(Calkins, 1994), 정서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서모델자로서 영아의 정서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Saarni, 1993). 교사의 수준 높은 민감성은 영아의 다양한 정서적·신체적 표현들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게 하며 사회·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유지연, 황혜정, 2015; Gerber et al., 2007). 교사의 반응적 돌봄을 통해 영아는 자신의 감정이 적절하게 존중받고 이해된다는 것을 느끼고, 교사와 영아간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Peisner-Feinberg & Burchinal, 1997).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 민감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는 개인 내적 요인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인 중 ‘공동주의 반응’과 개인 외적 요인인 교사의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요인 중 ‘공동주의 반응’은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 ‘또래관계’, ‘일과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민감한 상호작용’은 영아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관계’, ‘일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교사 민감성의 영향력이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에 비해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교사의 민감성 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인은 교사의 민감성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사는 민감한 상호작용을 통해 친숙한 가정을 떠나 낯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아와 직접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지 및 격려를 통해 갈등과 의존성을 낮추어주며, 어린이집을 안정적인 공간으로 느끼고 적응하도록 돕는다(윤정민, 이주연, 2018). 즉, 영아의 월령, 성별, 형제유무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관계없이 영아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었을 때,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외적 요인은 교사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민감한 상호작용’이 대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와 주 양육자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영아가 공동주의 반응을 활발하게 불러일으키는 교사의 민감성의 수준이 증가한다면 영아의 월령, 성별 및 형제유무에 관계없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 양육자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중 ‘공동주의 시도’와 ‘행동조절 시도’가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연관이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폭넓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만 1세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의 민감성이 만 1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고,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영아의 개인 내적 변인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개인 외적 변인인 교사 민감성의 고유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구학적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둘째, 주요 변인의 총점만으로 영향력을 살펴보기보다는 각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설명하는 세부 요인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기 위한 접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셋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중 가장 어린 월령의 만 1세(12~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중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요인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및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보다 교사 민감성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의의에도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영아의 월령을 만 1세(12~23개월)로 한정였다. 영아는 월령에 따른 개인차가 크기에 추후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영아의 월령집단을 나누어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은 어머니보고식 측정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의 민감성은 교사의 자기보고식 측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을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살펴보고, 교사의 민감성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측정하여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선영, 정지나 (2019). 영아의 기질, 부모-영아 애착, 교사의 민감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28(5), 463-475. doi:10.5934/kjhe.2019.28.5.463
- 길현주, 김수영 (2014). 교사의 수용적,반응적 태도 및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3(2), 39-52.
- 김미영 (2011).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사민감성에 관한 연구: 환경 변인 및 개인 변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2017). 교사민감성과 교사-어머니 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환, 조혜연, 김민정 (2013). 만 4세 유아의 언어능력,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 **어린이미디어 연구**, 12(2), 97-121.
- 김연수, 박금주 (2010). 영아기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성 및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과 아동 초기 언어능력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1), 191-207.
- 박병옥 (2009).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성이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화 (201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영아-어머니, 영아-교사 관계 탐색.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숙, 김현경 (2016). 교사의 DISC행동유형과 민감성에 따른 영아의 정서조절. **아동교육**, **25**(4), 187-203. doi:10.17643/KJCE.2016.25.4.10
-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배유림 (2016). 10~18개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시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영아 어휘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애란, 송승민, 이사라 (2015). 영아의 기질, 교사의 민감성 및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1), 37-53. doi:10.30528/jolss.2015.5.1.003
- 신수진, 김현명 (2018). 유아의 기관적응과 주의집중력, 문제행동, 언어능력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2**(4), 173-196. doi:10.32349/ECERR.2018.08.22.4.173
- 양숙경 (2010).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만 1, 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직장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미리, 조운경 (2013). 반응성 교수 교사교육이 교사의 주도행동과 발달지체 유아의 중심축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13**(1), 173-199.
- 유지연, 황혜정 (2015). 영아교사의 민감성, 효능감,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 1-23. doi:10.14698/jkce.2015.11.3.001
- 윤정민, 이주연 (2018). 교사효능감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영아 관계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1), 203-225. doi:10.14698/jkce.2018.14.01.203
- 이경진, 이유진 (2017). 보육교사의 반응성 상호작용 전략 적용을 통한 영아의 중심축 행동 발달. **한국보육학회지**, **17**(1), 1-28. doi:10.21213/kjcec.2017.17.1.1
- 이민영 (2015).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 민감성과 교사-영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순, 이완정 (2019).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 관계에서 교사 - 영아관계의 조절효과: 수직적 전이집단과 수평적 전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2), 21-36. doi:10.14698/jkce.2019.15.02.021
- 임민영 (2016). 영아의 기질과 교사가 지각한 영아-교사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심, 박은주, 문수백 (2012).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 영아발달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207-224.
- Black, B., & Hazen, N. L. (1990). Social status and patter of communication in acquainted and un-acquainted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 Psychology*, **26**(3), 379-387. doi:10.1037/0012-1649.26.3.379
- Buyse, E., Verschueren, K., & Doumen, S. (2011). Preschoolers' attachment to mother and risk for adjustment problems in kindergarten. *Social Development*, **20**(1), 33-50. doi:10.1111/j.1467-9507.2009.00555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 53-72. doi:10.2307/1166138
- Claussen, A. H., Mundy, P. C., Mallik, S. A., & Willoughby, J. C. (2002). Joint attention and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in infants at risk.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2), 279-292. doi:10.1017/s0954579402002055
- Cutting, A. L., & Dunn, J. (1999). Theory of mind, emotion understanding, language, and family background: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terrelations. *Child Development, 70*(4), 853-865. doi:10.1111/1467-8624.00061
- Delgado, D., Mundy, p., Venezia, M., & Block, J. (2003). *Pictorial Infant Communication Scale(PICS)*. Miami, FL: University of Miami.
- Dix, T. (2000). Understanding what motivates sensitive parenting. *Psychological Inquiry, 11*(2), 94-97.
- Elian, N., Hoerl, C., McCormack, T., & Roessler, J. (2005). *Joint attention: Communication and other mind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Gerber, E. B. (2003). *Predictors of teacher sensitive caregiving in center-based child car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Gerber, E. B., Whitebook, M., & Weinstein, R. S. (2007). At the heart of child care: Predictors of teacher sensitivity in center-based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2*(3), 327-346. doi:10.1016/j.ecresq.2006.12.003
- Hamre, B., Hatfield, B., Pianta, R., & Jamil, F. (2014). Evidence for general and domain-specific elements of teacher-child interactions: Associations with preschool children'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85*(3), 1257-1274. doi:10.1111/cdev.12184
- Howes, C., & Smith, E. W. (1995). Children and their child care caregivers: Profiles of relationships. *Social Development, 4*(1), 44-61. doi:10.1111/j.1467-9507.1995.tb00050
- Jews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doi:10.1016/S0885-2006(05)80097-3
- Mahoney, G., & MacDonald, J. (2007). *Autism and developmental delays in young children: The responsive teaching curriculum for parents and professionals manual*. Austin, TX: PRO-ED Inc.
- Nievar, M. A., & Becker, B. J. (2007). Sensitivity as a privileged predictor of attachment: A second perspective on De Wolff and van IJzendoorn's meta analysis. *Social Development, 17*(1), 102-114. doi:10.1111/j.1467-9507.2007.00417.x
- Peisner-Feinberg, E. S., & Burchinal, M. R. (1997). Relations between preschool children's child-care experiences and concurrent development: The cost, quality, and outcome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51-477.
- Peleg, O., Halaby, E., & Whaby, E. N. (2006).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 differentiation of self to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 A study in Druze famili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8), 973-995. doi:10.1016/j.janxdis.2006.01.008
- Pons, F., Lawson, J., Harris, P. L., & de Rosnay, M.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 understanding: Effects of age and languag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4(4), 347-353. doi:10.1111/1467-9450.00354
- Rimm-Kaufman et al. (2002). Early behavioral attributes and teachers' sensitivity as predictors of competent behavior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451-470. doi:10.1016/S0193-3973(02)00128-4
- Saarni, C. (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 435-446). New York: The Guilford Press.

논문투고: 20.08.17
수정원고접수: 20.09.12
최종게재결정: 20.10.11